



염려 한다구요?

■ 목 적 :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배우게 한다.

■ 목 표 :

1. 두 가지 종류의 염려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2. 베드로가 물위로 걸어 가다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3. 걱정하게 될 때 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준비물 : 칠판과 분필(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보재), 종이, 연필

■ 말씀 준비(2~3분)

아래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영철이는 또 시작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밤마다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잘 시간이 되면 야단법석을 떨다가 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곁에서 잘 자라고 해주어도 싫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죽겠어, 무슨 병이 걸렸나봐. 내일 학교에 가기 싫어.” 하며 영철이는 떼를 써 댔습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부모님들도 영철이를 사랑하지만, 영철이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마침내 영철이는 학교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부모님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철이는 그 일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영철이는 그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는 그 후에 그렇게 행동이 변해 갔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것만이 학교에 안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이 그들의 놀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일로 인하여 걱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각각 종이를 나눠주고 자신들이 염려하는 것을 그려 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종이에 그린 것들을 발표해 보게 합니다.

■ 말씀 연구(4~5분)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염려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근심해서 하는 염려와 깊은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염려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의지의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근심하는 염려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4~32절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정말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의 아니라 주위에서 부는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결이 얼마나 거센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점점 물속에 빠져 들어 가기 시작하자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여러분은 혼자서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